

## 對話의 인접쌍에 관한 研究

구 자 은  
영어영문학과  
(1987. 9. 30 접수)

### <要 約>

對話分析은 一貫性있는 談話의 生成을 위한 規則을 발견하고 그러한 규칙에 의해 생성되는 각종 對話構造의 규명·기술을 그 目的으로 한다. 그런데 대화구조에는 화자의 交代를 組織化하고 한번에 한 사람이 이야기할 것을 주로 意圖하는 말교대하기 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이러한 基本體系를 作動시켜 대화의 進行을 촉진시키는 가장 훌륭한 체계로 인접쌍이란 連續體가 또한 存在한다.

本考에서는 우선 인접쌍의 특성과 그 기능을 살피고, 다음으로 인접쌍 후속부에 選好組織의 개념을 도입하여 그 구조적 특성을 검토하며, 동시에 '질의(Q)－응답(A)'과 '평가(A)－동의(A)／비동의(D)'의 후속부에 대한 分析을 통하여 이의 體系化 可能 유무를 考察하면서, 끝으로 研究過程에서 發生된 問題點과 그 解決方案 등을 주로 살펴보려 했다.

그 主要 研究結果를 간단히 요약하면, i) 인접쌍의 規模는 삼입연속체나 과정／협의 進展部 등의 내포를 통해 그 확대가 가능하며, 이 경우 話題不良에 따른 대화의 병리현상을 막기 위해 그 내용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함을 볼 수 있었고, ii) 현행말차례는 선행말차례에 의해 影響을 받고 후속말차례에 영향을 끼침이 일반적이거나, 역으로 그 後續部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인접쌍을 포함하고 있는 全體組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었으며, iii) 인접쌍 'Q－A'와 'A－A/D'의 분석을 통해 비록 複雜多岐한 樣相을 보이지만 그 後續部에 대한 體系化가 可能함을 볼 수 있었고, iv) 인접쌍은 통상 두 개의 말차례로 이루어져 나름의 獨自的인 連續體를 구성함이 일반적이거나, 세개의 말차례로 된 연속체 등에도 變異形으로 처리될 수 있는 인접쌍이 存在가능했다. 또한 對話時 그 位置에 拘礙받지 않고 출현 가능한 掃路部와 應急部 등의 존재로 인접쌍의 또 다른 變異形을 예견할 수 있었다.

---

## A Study on Adjacency Pairs of Conversation

Koo, Ja-Eun  
Dept. of Eng. Lan. & Lit.  
(Received September 30, 1987)

### 〈Abstract〉

One of the major aims of Conversational Analysis is to discover the rules for the production of coherent discourse and to describe the conversational structures they generate. Among these structure are included not only 'a turn-taking system' designed to organize the change of speakers and keep only one speaker at a time, but also included 'adjacency pairs' to be deeply inter-related with the turn-taking system and to crank up and get rolling the system for furthering conversational interaction.

In this paper my main concerns are largely focused on the following issues : i) on the characteristics of adjacency pairs(=AP) and their fundamental functions, ii) on the structural natures of 'preference organization' produced for AP's second-parts analysis, iii) on the possibility of systemization of the sophisticated second-parts by analyzing APs 'Q-A' and 'A-A/D', iv) on the problems prompted by this study and their solutions alike.

The key results thus obtained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size of AP may be expanded due to the existence of insertion sequence or processing/conference passes, in which case the maintenance of its coherent contents is essential to shun the pathological phenomena of conversation stemming from inpertinent topic shift, 2. A current turn, in constraining the design of the next turn, can be affected by the prior turn. However, more noticeable, it can also be subject to both the influence of the next turn and that of the overall organization embedding AP. 3. Though the second-parts usually show complex aspects in their representations, their systemization may be found to be quite within the bounds of possibility by the partial analysis of APs 'Q-A' and 'A-A/D'. 4. AP is usually composed of two turn to be of its own status in conversation. The are, however, certain recurrent kinds of sequence definable over three turns, in which AP can also be found as embedded. In addition to the embedded AP variants, there may be more chances for another kind of AP variants because there exist channel-clearing passes and emergency ones which can occur without any sort of positional constraints.

---

## I. 序 論

Chomsky는 언어를 그 使用, 사용자 및 機能으로부터 유리시킬 수 있는 推象의 考案物 혹은 精神의 能力으로 취급함으로써 그 연구영역에서 현실적 운용의 차원인 言語遂行을 제외시켜 왔다. 하지만 언어를 社會的 財貨나, 意思疎通의 道具나 하는 것은 언어의 가치를 사고의 수단으로서 보다는 話·聽者 간의 의사전달의 가치를 더욱 중요시한 결과라고 볼 때, 언어수행 즉 말의 쓰임에 관한 연구는 필연적이라 하겠다.

말의 쓰임, 즉 말교환체계(speech-exchange system)에는 강의, 재판, 토론, 儀式, 세미나, 기자회견, 회합, 對談 및 對話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그 중에서도 언어의 本質에 가장 충실한 것으로 대화를 들 수 있다. 이는 대화에서 언어의 源泉的인 기능을 가장 잘 살필 수 있으며, 인간과 인

간간의 관계가 形成되어 나가는 과정을 또한 가장 쉽게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화는 화자 중심의 말하기인 웅변이나 연설·강의 등과는 달리 話題(topic)를 가운데 두고 화·청자가 공동으로 이루어내는 작품이라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즉 대화에는 화자와 청자가 固定된 것이 아니며 서로가 그 처지를 부단히 交替해 나가는 과정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말교대(turn-taking)라 하며, 대화는 적어도 두 개의 말차례(turn)로 이루어진다. 말차례는 文章, 節, 句 및 語彙 등을 그 單位形態로 갖는 대화구조의 기본단위로서, 예컨대 對談의 경우 교대로 이루어지는 말차례들은 주로 ‘質疑—應答’이 되며, 두 사람이 참여하는 대화의 경우에는 ‘A—B—A—B……’라는 말교대하기 체계(turn-taking system)가 형성된다. 이러한 체계는 말의 쓰임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지는데, 討論의 경우는 말차례가 찬반에 따라 事前配分되며, 의장이 있는 集會의 경우는 그 의장이 발언의 主導權을 갖고서 참여자의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그 말차례를 이어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對話分析(conversation analysis)은 一貫性있는 談話(coherent discourse)의 생성을 위한 규칙을 발견하고, 그러한 규칙에 의해 생성되는 對話構造 및 제반 連續體(sequential system)를 규명·기술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Sacks, et al.(1974)은 경험적으로 관찰가능한 14가지의 대화특성<sup>1)</sup>을 例示하면서, 동시에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말교대하기체계의 한 模型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화구조에는 전술한 말교대하기체계 외에 이와 관련되어 局部的으로 운영되는 인접짝(adjacency pair)이 있는데, 이것은 ‘질의—응답’, ‘인사—인사’, ‘제의—수락/거절’ 등과 같은 典型的인 한쌍의 발화를 일컫는다. 이러한 인접짝은 先行部(first pair part)와 後續部(second pair part)로 이루어져, 그 구성의 성격상 후속부가 선행부와 동일하기도 하며(인사—인사), 후속부가 하나일 수도 있고(질의—응답), 경우에 따라서는 적합한 후속부가 하나 이상일 수도 있다(초대—수락/거절).

本考에서는 이러한 인접짝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대화분석의 한 양상을 一瞥하려 하는 바, 우선 II章에서는 인접짝의 특성과 기능을 살피고, III章에서는 選好組織 概念을 통해 非選好後續部의 특성을 고찰하고, 아울러 인접짝의 유형을 분석하며, IV章에서는 ‘질의(Q)—응답(A)’과 ‘평가—동의/비동의’의 인접짝 분석을 통해, 후속부에 대한 體系化 내지 一般化가 可能한가를 시도해 보고, V章에서는 인접짝 분석에 따른 問題點과 그 解決策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分析資料는 전화 및 실제 대화 등의 녹음을 통해서 얻은 여러 분석자들의 영어자료를 주로 援用하고, 이 경우 실례에 따른 문화적인 특성이 다소 우려는 되나 이는 분석의 관심영역 밖이므로 無視하러 하며,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실례에 그 출처를 명시하러 한다.

## II. 인접짝의 特性과 그 機能

인접짝은 대화의 시작과 끝을 위해 중요하게 사용되며, 대화 도중에는 現話者로 하여금 次期話者

1) Sacks, H., Schegloff, E. and Jefferson, G., "A Simplest Systematics for the Organization of Turn-Taking in Conversation", *Language*, 50, 4, (1974), 701-708.

이러한 특성들은 대화분석의 중요연구 영역과 有關함으로 참고 삼아 몇가지만 인용해 본다.

- 話者交換은 순환적이거나 최소한 발생한다.
- 한번에 한사람씩 이야기하는 경우가 압도적이다.
- 말이 중복되는 경우도 흔하나 그 순간은 짧다.
- 말차례의 규모는 다양하다.
- 공백과 중복이 없는 말차례 전이가 일반적이거나, 약간의 예외도 있다.

와 그 화자의 언어행위를 선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말교대하기체계를 作動시키는 강력한 裝置가 된다. 이러한 인접쪽에 대해서 Schegloff and Sacks(1973)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 두개의 발화로 이루어지는 연속체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인접쪽의 사용을 관장하는 하나의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sup>2)</sup> 실례와 함께 이를 검토해 보자.

(1) i) 隣接되어 있다.

ii) 서로 相異한 話者에 의해 제시된다.

iii) 順序가 있어 선행부 다음에 후속부가 온다.

iv) 특수한 선행부는 特殊한 後續部를 요구한다.

(e. g. 세의-수락/거절, 인사-인사)

(2) 규칙: 인접쪽의 선행부를 발화한 현화자는 대화를 멈추고, 차기 화자가 그 지점에서 후속부를 발화하여야 한다.

(3) a. Greeting—Greeting

A:Hi, there

A:Bye then

B:Hello

B:Bye

b. Complaint—Denial

Ken: Hey yuj took my chair by the way an' I don't think that was very nice

Al: I didn't take yer chair, it's *my* chair.

c. Compliment—Rejection

A:I'm glad I have you for a friend.

B:That's because you don't have any others.

d. Challenge—Rejection

A:It's not break time yet.

B:I finished my box, so shut up.

e. Request—Acceptance

'7:19. Raymond sat back in his chair. He was nearly finished with his breakfast. He said in a slightly complaining tone, "Mommie, I don't want this other piece of toast." His mother said casually, "You don't? Well O. K., I guess you don't have to eat it." He finished eating his breakfast.'

(3) 에 제시된 例들은 실제로 대화에서 인접쪽으로 된 연속체만을 발제한 것인데, 모두가 (1) 과 (2) 의 속성을 훌륭히 만족시키고 있다. 그러나 대화에는 인접쪽 이외의 보다 복잡한 많은 류의 연속체가 있는데, 특히 인접쪽에 걸쳐있는 制約들은 통사규칙 등과 유사한 形成規則(formation rule)으로는 적절하게 표본화 할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인접쪽이 存在함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규칙성을 끄집어 내기 위한 기저의 예상가능한 사실들에 대한 정확한 明示化는 간단치가 않다는 것이다. 그 결과 위 (1), (2) 와 같은 성격규정은 하나의 試圖에 불과하며, 이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엄격히 인접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 강한 要求條件이다. 우선 다음 例를 보자.

2) Schegloff, E. & Sacks, H., "Opening up closing", *Semiotica* 4, (1973), 295—296.

(4) a.

A: May I have a bottle of Mich? ((Q<sub>1</sub>))

B: Are you twenty one? ((Q<sub>2</sub>))

A: No ((A<sub>2</sub>))

B: No ((A<sub>1</sub>))

b.

A: 너도 같이 갈래? ((Q<sub>1</sub>))

B: 철수는? ((Q<sub>2</sub>))

A: 어느 철수? ((Q<sub>3</sub>))

B: 큰 철수 말이야. ((A<sub>3</sub>))

A: 그는 안 가. ((A<sub>2</sub>))

B: 그럼, 나도 안 가. ((A<sub>1</sub>))

(5) B: U:hm(.) what's the price now eh with V. A. T. do you know eh ((Q<sub>1</sub>))

A: Er I'll just work that out for you=((HOLD))

B: =thanks ((ACCEPT))

(10.0)

A: Three pounds nineteen a tube sir ((A<sub>1</sub>))

※ 기호의 규약= =latched, utterance, with no gap

(10.0) Pauses for (10.0)seconds

위의 실례에서 보듯 대화구조에는 앞에서 살펴본 말교대나 인접작의 경우처럼 線形(linear)構造 외에 (4), (5)에서 볼 수 있는 內包(embedded)構造도 있는데, 이런 작을 Schegloff(1972)는 挿入連續體(insertion-sequence)라 하며, 이러한 연속체가 삽입되는 세가지 경우로 i) 선행부에 대한 이해부족時, ii) 화자로부터 더욱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iii) 발뻠(책임회피)의 목적 등으로 후속부에 대한 언급을 留保하고 다른 연속체의 선행부를 언급한다는 것이다.<sup>3)</sup> 즉 (4, a)에서 보듯이 A가 마취제가 든 술 Mich(Mickey Finn)를 한 병 살 수 있느냐고 묻자, 직접 대답을 하지 않고 나이가 21세인가고 묻고 아니라고 하자 Mich를 팔 수 없다고 한다. ((Q<sub>2</sub>))와 ((A<sub>2</sub>))가 ((Q<sub>1</sub>))과 ((A<sub>1</sub>)) 사이에 삽입되어 있고, (4, b)의 경우에는 내포된 삽입연속체에 또 다른 "Q<sub>3</sub>-A<sub>3</sub>"작이 내포되어 있다. 대화에 따라서는 내포가 反復되어 나타난 (Q<sub>1</sub>(Q<sub>2</sub>(Q<sub>3</sub>(Q<sub>4</sub>-A<sub>4</sub>)A<sub>3</sub>)A<sub>2</sub>)A<sub>1</sub>) 구조처럼 Q<sub>1</sub>과 A<sub>1</sub>이 여러 말차례 떨어져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A<sub>1</sub>의 適切性은 豫備行爲(preliminary)들이 분류되는 동안 잠정유보되고, 이때 '삽입연속체의 내용은 예비행위들의 분류에 국한되며'(Insertion sequences are restricted in content to the sortion out of such preliminaries), 그렇지 못하면 대화의 話題不良에 따른 병리현상을 야기시킨다.<sup>4)</sup> 뿐만 아니라 대화에 따라서는 'R<sub>1</sub>(request)-Q<sub>1</sub>-Q<sub>2</sub>-A<sub>2</sub>-Q<sub>3</sub>-A<sub>3</sub>-ACCOUNT FOR NO A<sub>1</sub>'구조처럼 인접작 R<sub>1</sub>과 Q<sub>1</sub>에 따른 각각의 후속부 수락(Acceptance)/거절(Rejection)과 A<sub>1</sub>이 마지막 말차례에서도 발생하지 않을 경우 그것에 대한 처리방침이 제시되어 A<sub>1</sub>의 出現挫折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며, 이 A<sub>1</sub>의 출현좌절이 R<sub>1</sub>에 대한 反應不在의 이유설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注目할 점은 삽입연속체와 인접작의 이러한 특성은 화제의 일관성을 유지시켜 주면서 대화의 量을 효과적으로 확장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잠시 인접작의 기능에 관해 살펴보자. 이는 인접작(或은 삽입)연속체의 構造上 特性이 그 機能과 不可分の 關係를 이루어 대화의 진행 및 확대, 그리고 일관성 유지에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

3) M. Coulthard, *An Introduction to Discourse Analysis*(Longman Group Limited, 1977), 68.

4) 김종택, *國語話用論*(형설출판사, 1984), 266-276.

김종택은 기술부족에 따른 대화의 병리현상을 (가)순환불량의 대화, (나)화제불량의 대화, (다)용어불량의 대화, (라)대우불량의 대화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하기 때문이다. 인접적이 차기화자와 그 화자의 행위를 선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말교대하기체계를 작동시키는 강력한 장치가 됨은 이미 前述한 바 있으나,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

대화에 작용하는 각종 체계는 그 기능이 相互 聯關되어 있으며, 이 사실이 각종 체계를 발견하기 위한 강력한 方便이 된다. 우리가 대화에서 최초 발견한 기본장치는 말교대하기체계인데, 이것은 화자의 交代를 조직화하고 한번에 한 사람이 이야기할 것을 주로 의도하고 있는 체계이다. 그러면 그러한 장치는 어떻게 始動이 걸리고 굴러가는가? 對話活動을 계속케하는 즉 'A—B—A—B……'의 말차례 유형을 가능케 해주는 어떤 장치가 필요한데 最初의 A—B 연속체를 설명하면서 이런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하는 것이 인접적이다. 이는 대부분의 대화가 인접적으로 시작(opening)이 되는데 그 원인이 있으며, 동시에 차기화자를 선택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呼稱語(address term)를 선행부에 삽입시키는 것이란 사실에 기인하고, 인접적의 개념에 따라 선행부의 성격이 후속부의 성격을 통제하는 바 예컨대 선행부가 人事(Greeting)이면 그 후속부의 반응 人事(G)가 자동 결정되면서 대화를 진행시키기 때문이다. 한편 인접적의 선행부는 차기화자로 하여금 重複(overlap)과 空白(gap)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한다. 이는 선행부와 후속부의 凝集力으로 인해 豫見性(predictability)이 강하기 때문이며, 일반대화의 경우 語彙없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빈번한 것과는 달리 인접적의 경우 그 후속부의 不在는 有標化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사실은 화자가 말교대하기규칙<sup>5)</sup>을 稼動하여 인접적의 선행부로 청자에게 이야기했을 때 청자의 즉각적인 후속부에 의한 반응이 없으면, '대화통로상의 接觸不在', 혹은 '問題發生' 등과 같은 강한 推論(inference)을 유발시키게 된다. 다음 대화 연속체를 보자.

(6) Drew, 1981:249

T<sub>1</sub> M : What's the time—by the clock?((Q<sub>1</sub>))

T<sub>2</sub> C : Uh ((A<sub>1</sub>))

T<sub>3</sub> M : what's the time ? ((Q<sub>2</sub>))

→ T<sub>4</sub> (3, O) (( ))

T<sub>5</sub> M : (Now) what number's that ? ((Q<sub>3</sub>))

T<sub>6</sub> C : Number two ((A<sub>3</sub>))

T<sub>7</sub> M : No it's not. What is it ? ((Q<sub>4</sub>))

T<sub>8</sub> C : It's a one and a nought. ((A<sub>4</sub>))

※ 기호의 규약

→ draws attention to location of phenomenon of direct interest to discussion.

5) Sacks, Schegloff, and Jefferson(1974:708)은 말교대하기체계—화자의 교체를 조직화하고 한번에 한사람이 이야기할 것을 주로 의도하고 있는 체계—를 관장하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Rule 1—applies initially at the first TRP of any turn

(a) If C selects N in current turn, then C must stop speaking, and N must speak next, transition occurring at the first TRP after N—selection.

(b) If C does not select N, then any (other) party may self—select, first speaker gaining rights to the next turn

(c) If C has not selected N, and no other party self—selects under option (b), then C may (but need not) continue (i. e. claim rights to a further turn—constructional unit)

Rule 2—applies at all subsequent TRPs.

When Rule 1(c) has been applied by C, then at the next TRP Rules 1(a)—(c) apply, and recursively at the next TRP, until speaker change is effected

대화 (6) 은 엄마와 자녀간의 대화로 말차례 T<sub>3</sub>에서 선행부((Q<sub>2</sub>))로 아이에게 시간을 묻는다. 이 경우 3초간의 장시간 말없음(pause)은 엄마의 말차례내에서 문장 간에 발생하는 경과(lapse)라기 보다는 말교대하기규칙에 의해 아이의 말차례에 배당되는 沈默(silence)으로 보아야 한다.<sup>6)</sup> 동시에 그 해석은 'answer unknown'을 暗示하는 것으로 추론되어야 하며, 이러한 분석은 어머니의 그 다음 말차례에서 더욱 명확해진다. 뿐만아니라 인접작은 대화를 마치고자 할 때에도 강력히 필요한 裝置인데, 이는 어떤 참가자의 대화종결이 다른 화자의 말을 야기시키지 않고, 동시에 그것이 침묵으로 들리지 않을 위치에 함께 도달하는 방법 또한 인접작의 기능에 起因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선행부가 'bye'로 즉각 종결을 주장하면 'bye'라는 후속부가 연이어 뒤따르면서 대화의 종결을 促進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특성으로 넘어와, '隣接해 있다'는 位置概念으로 그 특성을 규정함은 삼입연속체의 존재로 인해서 적합하지 못함을 보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Schegloff(1972 : 363)는 "선행부에 뒤이은 후속부는 적절성이 있고 예언성이 있다(immediately relevant and expectable)"고 주장하였으며, Levinson(1983 : 306)도 이와 유사한 Conditional Relevance(=CR)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CR은 인접해 있다'는 位置概念을 話題의 一貫성과 관련시켜 그 適切性(relevance)과 豫言性(expectability)의 개념으로 대치하는 것이다. 즉 선행부 Q가 나왔을 때 A대신에 그와 연관된 적절하고 특수한 각종 예상들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들의 이런 주장은 삼입연속체들의 내용들이 잠정 유보된 적절한 후속부에 이르는 예비행위들의 분류로 局限되어짐을 볼 때 進一步한 설명으로 간주된다.

인접작의 특성에 따른 두번째 문제점은 선행부에 따른 후속부의 가능한 範圍에 관한 것이다. 즉 가능한 후속부의 數가 많다는 사실이다. 주어진 선행부에 대해 후속부의 수가 적거나 限定되지 못하면, 인접작의 장점인 高凝集體(tight organization)란 특성이 위력을 상실한다. 그런데 실제대화에는 선행부의 질의(Q)에 수용가능한 후속부로 看做될 수 있는 응답(A)으로 무수한 반응이 있을 수 있다.

(7) A : What does John do for a living ?

- B : a. Oh this and that,  
 b. He doesn't.  
 c. I have no idea.  
 d. What's that got to do with it ?  
 e. Better ask Mary.

(8) A : Is John there ?

B : You can reach him at extension thirty—four sixty—two

즉 응답(A)대신에 전술한 挿入連續體도 나올 수 있고, (7)의 경우처럼, a. 부분응답(partial answer), b. 질의의 前提否認, c. 모름을 진술, d. 질의의 適切性否認, e. 응답轉嫁(reroute) 등의 出現可能性이 그 실례라 하겠다. 뿐만아니라 (8)의 경우도 후속부인 응답 (A)에 해당하는 Yes나

6) Levinson(183 : 299 or 327)은 대화에서 말없이 이루어지는 pause를 3종으로 구분하여 말교대하기규칙 1(b)나 1(c)적용 以前의 지체를 空白(gap), 규칙의 적용과 무관할 때를 경과(lapse), 그리고 규칙 1(a)의 적용이후의 차기화자에 의한 말없는 시기를 '선택된 차기화자의 의미심장한 침묵'(a selected next speaker's significant/attributable silence)으로 例證하면서, 특히 이 침묵에 말차례를 할당하고 있다.

No대신에 선호도가 더 높은 '創意的이며 協助的인 反應'(inventive and co-operative responses)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Grice의 協力原則<sup>7)</sup>의 대전제인 "대화 참가자들은 상호협조적이다."(People are co-operative)라는 명제와 그 脈을 같이 한다고 보겠다. 어쨌든 인접쌍 Q에 대한 후속부가 A로 제한되어 있지만 그 반응이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접쌍에 대한 구조적 중요성을 評價切下시킴이 분명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인접쌍 개념의 중요성을 재평가하게 된 사람이 Levinson(1983)이다. 이를 위해 그는 選好組織(preference organization=PO) 개념을 導入하고 있는데, 이 PO는 어떤 선행부에 뒤따라 나올 수 있는 후속부들이 모두가 同等한 資格을 갖춘 것이 아니고, 그들 사이에는 等級(ranking)이 존재하며, 이에선 選好部(preferred seconds)와 非選好部(dispreferred seconds)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sup>8)</sup> 그의 이러한 주장은 인접쌍 연속체에 대한 통찰력있는 분석으로서, 章을 바꾸어 詳論하기로 한다.

### III. 選好組織과 인접쌍 類型

Levinson(1983 : 332--345)에 의하면 인접쌍의 후속부에는 선호부와 비선호부로 구분되는 等級이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 選好概念(preference)은 화·청자 개인의 심리적 선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언어의 有標化(markedness) 개념과 밀접히 대응되는 構造的 概念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선호후속부는 구조적으로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말차례로서 발생하기 때문에 無標化(unmarked)한 것이고, 비선호후속부는 각종 구조적 복잡성으로 인해 有標化된 (marked) 것이라 하겠다. 그에 의하면 비선호후속부(=비선호부)는 i) 상당한 지연(delay) 후에 ; ii) 비선호부의 출현을 알리는 Well이나 Ah같은 序頭語(preface)와 함께 ; iii) 선호부가 올 수 없는 이유설명 등과 더불어 제시되는 傾向이 있다.

(9) a.Child : Could you .hh could you put on the light for my .hh room.

Father:Yep

b. C:Um I wondered if there's any chance of seeing you tomorrow sometime(0.5) morning or before the seminar

→ (1.0)

→ R : Ah um(,) I doubt it

C : Uhm huh

R : The reason is I'm seeing Elizabeth

※ 기호의 규약 ·hh indicates an in-breath

(·)micro pause--potentially significant but very short pause

7) Grice(1975 : 41-59)는 話·聽者 間에는 "사람들은 협조적이다"는 사실을 대전제로 하면서 원만한 대화의 進行을 가늠하는 다음과 같은 4가지 協力原則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1) Maxims of Quantity, (2) Maxims of Quality, (3) Maxims of Relation, (4) Maxims of Manner

특히 3)의 '관계성의 격률'에 관한 연구는 拙稿(1983 : 11-15)를 참고바람.

8) Levinson(1983:307)

The central insight here is that not all the potential second parts to a first part of an adjacency pair are of equal standing:there is a ranking operating over the alternatives such that there is at least one **preferred** and one **dispreferred** category of response.



대화 (9. a)에서 전기불을 켜달라는 아이의 要求(Request)에 대한 受諾(Acceptance)은 크게 지연 없이, 그리고 간단히 수락'yep'로 행해지는데 반해 (b)의 약속에 대한 要求拒絶(Refusal)은 i) 1초간 지연후에 ; ii) 추가지연부 즉 Ah, um, 찰나중지(micropause) 다음에, iii) 거절에 대한 이유가 뒤따라 나오는 非最小(non-minimal)의 말차례(i.e. No 대신에 'I doubt it' 사용)에 의해 행해진다. 이처럼 요구에 대한 거절은 유표된 방법으로 행해짐이 정상이며, 이것이 곧 비선호부가 된다. 提議에 대한 거절, 긍정적평가 다음의 부정적평가, 비난(Blame)에 대한 수긍(Admission) 등은 체계상 모두 비선호부로 유표화된다. 요약컨대 후속부에 대한 선호조직의 一般的 傾向은 선호부가 簡略하고 直接的인데 반해, 비선호부는 지연<sup>9)</sup>되고 복잡하다. 그런데 화자들은 이러한 비선호부에 의해 발생하는 행위 즉 비선호행위를 피하려는 말 생성규칙을 필요로 하게 된다. Sacks(1972)는 대화구조의 일부 복잡성은 화자들이 당황스럽거나 난처한 상황을 피하려는 데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화자가 要求, 招待, 提議 등을 할 때는 언제든지 거절을 당할 可能性이 있다. 이런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事前連續體(Pre-sequence)를 작동하는데 다음 대화의 요구를 위한 가능여부를 묻는 말차례 T<sub>1</sub>과 T<sub>2</sub>가 여기에 속한다.

- (10) T<sub>1</sub> A : Hi, Do you have uh size C flashlight batteries?  
 ((PRE-REQUEST))  
 T<sub>2</sub> B : Yes sir ((GO AHEAD))  
 T<sub>3</sub> A : I'll have four please ((REQUEST))  
 T<sub>4</sub> B : ((turns to get)) ((RESPONSE))

pre~request s, request s,

지금까지 要求에 대한 몇가지 실례를 보았는데 다음은 招待의 경우를 잠시 보자.

- (11) a. Atkinson & Drew, 1979:58

A: Why don't you come up and see me some//times

B: I would like to

- b. Atkinson & Drew 1979:58

A: Uh if you'd care to come and visit a little while this morning. I'll give you a cup of coffee

→ B: hehh Well that's awfully sweet of you,

((DELAY)) ((MARKER)) ((APPRECIATION))

I don't think I can make it this morning.

((REFUSAL or DECLINATION))

hh uhm I'm running an ad in the paper and -and uh I have to stay near the phone.

((ACCOUNT))

\* 기호의 규약

//point at which the current utterance is overlapped by that described below

9) 지연은 비선호부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으로서, i) 말차례 시작 前의 pause에 의해서, ii) 교정축발소(repair initiator) 및 삽입연속체 등을 통한 적절한 행위의 후속부 추후 이동을 통해서나, iii) 서두어 등의 사용에 의해서 주로 具現된다. 한편 이러한 서두어에는 i) uh나 well같은 비선호 標識語, ii) 비동이나 거절에 앞선 등의 표시의 수식어, iii) 감사어나 사과어, iv) 자가교정(self-editing) 등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망설임어(hesitation word=umm)가 포함된다.

(11. a)의 선행부에 나오는 초대는 수락을 그 후속부로 갖고 있다. 그 결과 초대에 따른 수락은 構成이 간단하며 (of simple design), 지연없이, 가끔 부분적인 중복의 형태로 전달된다. 이와는 對照的으로 b의 초대는 拒絕(Refusal)이나 辭讓(Declination)을 그 후속부로 갖고 있다. 따라서 이곳에는 비선행부의 典型的인 특성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 우선 遲延((DELAY)), 비선행부를 나타내는 표준 서두어 well의 출현, 초대—수락의 경우에는 좀체로 볼 수 없는 感謝((APPRECIATION))<sup>10)</sup>, 정중한 거절(mitigated refusal), 비선행부가 후속부로 나오게 된 이유 설명((ACCOUNT)) 등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요구나 초대에 대한 거절등의 실제 대화상황에서 觀察可能한 여러 가지 비선행부의 특성들을 보았다. 그런데 만약 별반 지연없이 이루어지는 선행부의 경우에 그 수락 및 동의가 체계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에는 深刻한 문제가 뒤이어질 것임을 暗示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실례(12)를 보자.

(12)Levinson, 1983:337

- T<sub>1</sub> C : .....I wondered if you could phone the vicar so that we could  
 ((in-breath)) do the final on Saturday(0.8) morning o : r(.) afternoon or  
 →(3.0)  
 T<sub>2</sub> R : Yeah you see I'll I'll phone him up and see if there's any time free  
 (2.0)  
 T<sub>3</sub> C : Yeah  
 T<sub>4</sub> R : Uh they're normally booked Saturdays but I don't— it might not be

예(12)의 경우 送話者(caller)의 첫번째 말차례에는 여러 곳의 홈(slot)들 즉 돌출부나 適正轉移所(transition relevance place : 말차례 구성단위의 끝에 위치하는 화자교체가 가능한 곳)가 제시되어 그곳에서 受話者(receiver)가 C의 요구에 대한 수락의 선행형을 행할 수도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돌출부에는 긴들숨, 0.8초간의 두번째 pause, 장음화된 o : r, 그 뒤의 짧은 pause(·), 그리고 말차례가 끝난 후의 긴3초간의 유의미한 침묵(significant silence) 등이 포함되고 있다. T<sub>1</sub>에서 목사께 전화해 달라는 C의 要求에, T<sub>2</sub>에서 受諾의 선행후속부를 포함하면서도 주어진 돌출부의 말차례전이 기회를 간과하면서 장시간 침묵을 지킨 이유는 T<sub>4</sub>에서 R이 전화거는 용무와 관계된 問題解決이 簡單하지 않음을 示唆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의 注目을 끄는 것은 청자(T<sub>2</sub>)가 적정전 이소를 통과시키거나, 3초간의 침묵을 행함으로써 화자(T<sub>1</sub>)가 이야기하는 전과정에 걸쳐 그 말차례의 구성에 영향을 행사할 뿐 아니라 선행후속부(T<sub>2</sub>)를 취하면서도 비선행부의 특성을 보이고, 同時에 추후의 말차례 展開에서 그럴 수 밖에 없는 나름의 이유(T<sub>4</sub>)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서 捕捉 可能한 중요한 사실은 대화도중의 어떤 말차례는 선행말차례에 영향을 받고 뒤따르는 말차례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또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主張은 Sacks, Schegloff & Jefferson(1974)에 의해서도 잘 확인되고 있는데, 그들에 의하면 '말차례는 통상 3개 부분으로 된 구조로서 현재의 말차례와 이전의 말차례를 잇는 部分, 현재의 말차례 내용과

10) 일반적으로 초대에 대한 감사는 수락의 경우에도 발생하나 그 구조적 특성이 서로 다르다. 즉 거절의 경우에는 그 前에 발생하고 수락의 경우에는 그 後에 발생함이 일반적인데, 이는 한국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관련된 部分, 그리고 현재의 말차례와 그 다음 말차례와의 관계를 전하는 部分으로 구성된다<sup>11)</sup>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말교대하기 체계에 따라 어떤 말차례들이 連鎖(chain)를 이루어 그 영향을 상호 주고 받듯이 인접작을 구성하고 있는 말차례들도 (12)에서 보듯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며 동시에 그러한 인접작을 포함하고 있는 全體對話組織(overall organization)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비선호부의 構造的 特性和 이와 관련된 특수한 狀況을 하나 살펴보았다. 다음은 이러한 인접작에는 어떠한 類型이 있는 가를 잠시 보기로 하자. 圖表 (1) 은 여러 인접작의 후속부에서 발견되는 內容과 그 型的 相關關係를 표시하고 있다.<sup>12)</sup>

FIRSTPARTS(선행부) :

Request      Offer/Invite      Assessment      Question      Blame      Challenge

SECOND PARTS(후속부) :

<i>Preferred</i> : (선호부)	acceptance	acceptance	agreement	expected answer	denial	acceptance
<i>Dispreferred</i> : (비선호부)	refusal	refusal	disagreement	unexpected answer	admission	refusal
				non-answer		

圖表 (1) Correlations of Content and Format in Adjacency Pairs

Levinson은 선호 및 비선호말차례들에 대한 構造的 特성을 알게 되면 그러한 말차례들의 內容과 연속체 상에서의 그 位置를 그 말차례에 맞는 선호형이나 비선호형으로 생성하려는 (인접작의) 傾向과 상호 연관시킬 수가 있으며<sup>13)</sup>, 그 결과 많은 反復性있고 信賴性있는 類型(recurrent and reliable patterns)을 찾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요구나 초대와 같은 경우 거절은 항상 비선호형으로, 수락은 항상 선호형으로 具現되어짐을 볼 수 있으며, 같은 脈絡에서 대충 圖表 (1) 과 같은 유형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

끝으로 인접작 '도전-수락/거절'의 유형에 대한 Bax의 주장을 간단히 보자. Bax(1981: 423-444)는 名譽心(sense of honor)을 소중히 여기는 중세 기사들의 決鬪申請 方法에 관해 연구한 바 있는데, 그에 의하면 결투신청을 위한 기본대화 類型은 세개의 말차례로 구성되며 첫번째 말차례에서는 Sinclair and Coulthard(1975:44)에서 始發部(initiating)로 命名되는 하나의 대화동작 (conversation move)이 실현된다. 이러한 始發動作(intiating move=IM)은 두개의 行爲(act)로 구성되는데, 정보에 대한 요구와 위협이 그것이다. 두번째 말차례에는 두개의 대화동작이 통상 행해 지는데 하나는 거절행위이며, 또 하나는 挑戰行爲이다. 前者는 첫번째 말차례의 IM과 연관된 반응 동작(responding move)이고, 後者는 또 다른 IM의 기능을 하게 된다. 이 경우의 IM은 '구조상 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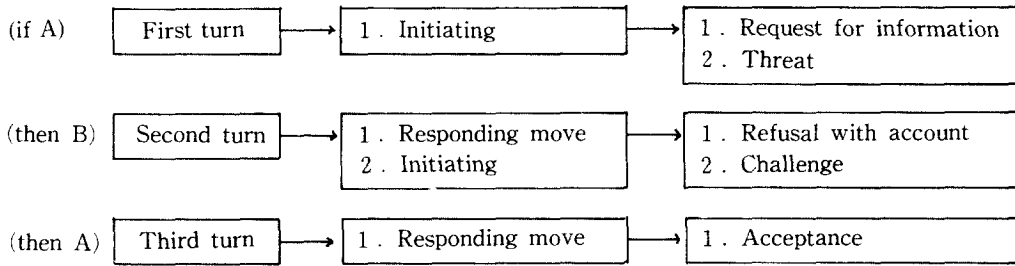
11) Sacks, etal(1974:723)

"Turns display gross organizational features that reflect their occurrence in a series. They regularly have a three-part structure: a part which addresses the relation of a turn to a prior, a part involved with what is occupying the turn and a part which addresses the relation of the turn to a succeeding one."

12) Levinson(1983:336)

13) *Ibid.*,336; "Given a structural characterization of preferred and dispreferred turns, we can then correlate the content and sequential position of such turns with the tendency to produce them in a preferred or dispreferred format."

約을 받는다'(structurally conditioned)는 의미에서 依存動作(bound move)이 되는데 반해, 첫번째 말차례의 IM은 이전의 행위에 의해 아무런 條件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獨立動作(free move)이 된다(Sinclair and Coulthard, 1975:56). 마지막으로 세번째 말차례에서는 도전에 대한 수락의 행위(중세기사들은 명예심이 강하여 도전에 대해 이를 회피하고 거절하게 되는 비선호형의 경우는 극히 희박하고 有標化한 것으로 看做됨)가 실현되는데, 지금까지의 주장에 대한 실례는 이를 具體化한 圖表(2)를 소개하면서 代身하려 한다<sup>14)</sup>.



圖表(2) The request-for-information sequence for ritual challenges

#### IV. 選好組織의 體系化

앞서서 우리는 인접쌍의 후속부를 級이 다른 선호부와 비선호부로 나누고 그 差異를 밝히면서 특히 비선호부들 사이의 일반적인 구조적 특성을 몇가지 인접쌍 유형과 함께 一瞥하였다. 여기서는 여러 인접쌍 가운데서 '질의(Q)－응답(A)'과 '평가(Assessment)－동의(Agreement)／비동의(Disagreement)'의 짝을 중심으로 그 후속부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며 동시에 그러한 樣相에 대한 體系化 내지 一般化가 가능한지를 檢討해 보고자 한다.

Katz(1972)는 '언어학상 응답이 가능한 질문'(linguistically answerable question)은 그 前提가 眞이 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정의하면서 '가능한 應答'(possible answer)이라는 개념을 질문의 전제(presupposition of questions:wh-Q의 의문사구를 不定詞句로 바꾼 표현)를 受容하는 범위 안에서 의 응답으로 국한하였다.<sup>15)</sup>

(13) A:What did John eat?

B: a. John ate something.

14) M. Bax, "Rules for Ritual Challenges: A Speech Convention Among Medieval Knights", *Journal of pragmatics* 5(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1981), 423-444.

Bax는 결투신청 의식으로서 '정보에 대한 요구 연속체', '행위에 대한 요구연속체'(the request-for-action sequence), '비난연속체'(the accusation sequence) 등 크게 세가지 유형을 제시하면서 각각의 연속체에 대한 기본 구조형과 그 변이구조형을 실례와 함께 상세히 취급하고 있다. 한편 결투신청을 위한 기본대화 유형은 圖表(2)에서 보듯 통상 세개의 말차례속에 두개의 인접쌍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양상은 本考 V章을 참고하기 바란다.

15) Katz(1972:215) "We define the notion 'linguistically answerable question' as roughly, one whose presupposition can be true, that is, one whose presupposition is neither indeterminable nor contradictory nor a contradiction.

- b. John didn't eat anything/John ate nothing.
- c. I don't know what he ate.

그에 의하면 A와 같은 질문에 대해 그 전제부분을 되풀이 하는 a의 응답은 '質問의 回避(evasion)', 전제를 부정하는 b와 같은 응답은 '質問의 拒否'로 불러 '가능한 應答'으로부터 除外시켰으며, c역시 응답자의 無知를 말한다 하여 역시 '가능한 應答'으로 보지 않았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언어의 사용면—話用相—을 無視한 협의의 의미론에서는 容認될 수 있으나 실제 대화상에는 자연스럽게 적절한 후속부로 용인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後者의 경우 응답자가 질문에 대한 답이 될 情報을 알고 있으리라는 對話假定을 고려한 때문이며, 여기서는 단지 그러한 답을 알고 있으리라는 질문자의 가정이 빗나간 것 뿐인 것이다. 따라서 '問—答'의 형식과 전달내용간의 相關性에 대한 폭넓은 分析을 위해서는 諸話用相 즉 대화 가정 및 화·청자간의 背景情報 등 話脈을 고려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하겠다. 그 결과 일정한 어떤 질문에 대한 응답은 화맥에 따라 그 숫자가 무수히 많아지게 된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대화 (7) 과 국어의 예를 인용해 본다.

- |                                       |                   |
|---------------------------------------|-------------------|
| (14)A:what does John do for a living. | A : 너 지금 몇시인지 아니? |
| B:a.oh this and that.                 | B : a.네.          |
| b.He doesn't.                         | b.(네) 10시예요.      |
| c. I've no idea.                      | c.왜 몰라요.          |
| d.what's that go to do with it?       | d.아직 11시인데요.      |
| e.Better ask Mary.                    | e.늦어서 미안해요.       |
| f.(3.0) ((SILENCE))                   | f.네, 곧 갈게요.       |

대화 A—B의 경우 선행부의 질문에 따른 응답은 部分응답, 질문의 전제부인, 無知(모름)의 진술, 質問의 適切性(relevance)부인, 응답회피 및 침묵(silence)의 형태로 반응하고 있다. 국어의 경우, a와 b를 직접적인 응답이라고 한다면 c~f는 모두 간접적인 응답이며, 특히 c는 질문자의 '너 몇시인지 모르지?'하는 물음에 대한 답으로, d와 e를 '시간이 늦었어!'라는 나무람조에 대한 답으로, f는 '늦었으니 자거라'는 間接話行의 요청에 대한 반응으로 각각 풀이되어 훌륭한 '問—答'의 인접작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질문(Q)의 후속부를 그 성질에 따라 분석하면서, 그 일반성을 追求하고 있는 Halliday and Hasan(1976:206-214)의 주장을 잠시 보자. 그들은 후속부의 概念을 위해 (발)대꾸부(rejoinder)라는 용어를 제시하고 그 정의를 '어떤 화자 A의 발화에 바로 뒤이어 그 발화와 一貫性있게 관계를 이루고 있는 화자 B의 發話'(any utterance which immediately follows an utterance by a different speaker and is cohesively related to it)로 규정하고 있다. 보통 Q에 뒤따르는 대꾸부에는 直接應答(direct response)과 間接應答(indirect response)으로 區分하며, 전자는 질문에 직접 응답하는 반응으로서, yes-no question(=YNQ)일 때는 'yes' or 'no'의 형태를, wh-question(=WHQ)일 때는 그에 따른 정보의 명시가 가해지는데, 그들은 특히 질문 Q에 대한 간접응답을 그 성질에 따라 다음 세가지로 분석·기술하고 있다.

첫째, 응답에 대한 話者의 態度에 대한 진술로 그 응답에 대한 無知, 응답하기를 동의하거나 거절하는 것으로서 Q에 대한 이러한 류의 A를 解說型應答(Commentary)이라 한다.



지금까지 대화(13)~(17)의 분석을 통해 Katz式 '질문의 전제'에서 출발된 통사 위주의 '가능한 應答'이 話用上의 가성이나 간접화행과 관련지어질 때 더욱 複雜多岐한 양상을 띠게 되며 이러한 응답은 Halliday and Hasan의 분석을 통해 그 성격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 가능함을 보았다. 여기서 문제로 관심을 끄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Q에 대한 A를 Levinson의 選好組織 개념과 어떻게 接木시키느냐라는 것이다. 그는 Q에 대한 선호/비선호부를 '예상된 응답(expected a.) / 비예상 응답 및 무응답(unexpected or non-answer)'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實例나 구체적인 설명은 전혀 없다. 성격상 이 문제는 다음 章으로 넘기고 여기서는 또다른 인접쪽 '평가--동의/비동의'의 양상을 살펴도록 하자.

(18) Pomerantz 1978:84-85

a.A: Isn't he cute? → B: Oh::h he::s a::dorable.

b.A: Why it's the loveliest record I ever heard

// And the organ-

→ B: Well thank you.

c. A: oh it was just beautiful

→ B: Well thank you + Uh I thought it was quite nice.....

((ACCEPTANCE)) ((AGREEMENT))

\* 기호의 규약 :: lengthened syllables

대화(18)에서 보듯 評價 즉 어떤 판단을 나타내는 주장에 대한 후속부는 동성 동의가 선호부의 無標識 狀態로 나타나는데, Pomerantz(1978:83--84)에 의하면 찬사(compliment)의 평가에 대한 선호후속부(=선호부)는 a처럼 동의로, b처럼 감사표시어(appreciation tokens)에 의한 수락으로, 그리고 c처럼 수락과 동의가 共存하는 형태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대화 a는 동의의 한 형태로 최적인 上向評價(upgrade)가 가해진 경우인데, 이러한 상황평가는 동의의 반응속에 더 강한 評價語(i. e. cute→adorable)로 대신하거나, 혹은 強意語(intensifier) 등의 첨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한편 c의 경우(감사표시어에 의한)수락과 동의는 상호 발접하게 재휴되어 있지만 수락에 비해 동의의 發生頻도가 낮고 동시에 제한 條件이 많으나, 共存할 때는 수락 다음에 동의가 나오며 상호교환이 불가능한 相補的 分布의 特性을 보인다고 한다.<sup>17)</sup>

그런데 대화상에는 후속부에 대한 對話的 豫想들(conversational expectations)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평가의 경우가 두 가지 있을 수 있다. 바로 自己卑下(self-denigration)와 自讚自讚(self-praise)의 경우다. 앞에서 보았듯이 찬사에 뒤이은 후속부에는 동의가 선호성이 높으나 이들의 경우에는 각각 비동의가 選好部로 나타나는 交叉削減原則(cross-cutting principle)<sup>18)</sup>이 적용된

17) A. Pomerantz(1978:87-88): 찬사의 평가에 대한 수락과 동의, 그리고 거절과 비동의 상호간의 關聯性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언하고 있다.

"while appreciations(of acceptances) and agreements are affiliated components(as evidenced by their co-occurrence), they are not sequentially interchangeable. Agreements tends to occur less frequently than appreciations and seem to have more restrictive conditions for their productions. When agreement do co-occur with appreciations, they are proffered routinely after initial appreciations."

18) 평가에 대한 선호부는 동의가 일반적이니, 자기비하(or 찬사)의 경우는 비동의가 선호부로 되어, 그 결과 이 둘 間에 相互葛藤이 발생한다. 그 결과 각각의 효과를 서로 削減시켜 자기비하의 경우는 평가절상시키고, 자화자찬의 경우는 평가절하시킨다(Levinson, 1983:398). 한편 Pomerantz(1978:89)는 이를 '자기비하회피제약'(self-denigration avoidance)과 '자화자찬회피제약'(self-praise avoidance)으로, 뒤 相互制約體系(co-operating constraint system)로 설명하고 있다.

다. 우선 前者(자기비하)의 경우를 보자. A가 자기비하를 하게 되면 평가후의 동의에 대한 선호로 인해 B로부터의 동의가 선호되어진다. 그러나 이 경우는 位階가 다르고 다른 어떠한 원칙에도 先行하는 독립적 원칙 즉 '自己卑下 回避原則(self-depreciation avoidance=SDA)에 의해 B는 그러한 동의를 회피해야 하며 그 결과 이의 선호부에는 비동의를 발생하게 된다.

(19) a. Pomerantz 1975:93

L:.....I'm so dumb I don't even know it. hhh!huh

→W:Y—no, y-you're not du:mb.....

b. Pomerantz, 1975:94

L:You're not bored(huh)?

→S:Bored? No. We're fascinated

a의 경우는 부정적인 평가어 'dumb'을 반박함으로써 SDA를 충족시키고, b의 경우는 부정적이고 비난조의 평가어 'bored'를 反駁하면서 이를 보다 적극적이고 찬사조인 평가어 'fascinated'로 上向評價(upgrade)를 하면서 最適의 비동의를 포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비하식 평가의 경우, 인접적 '평가—동의/비동의'의 선호부는 비동의를라는 사실과 비선호부의 특성에 따른 성격에서부터 대화 (20)의 말없음에는 큰 차이가 存在하게 된다.

(20) a. A:God isn't dreary!

b. A:I'm gettin fat hh

B:((SILENCE = DISAGREEMENT))

B:((SILENCE = AGREEMENT))

즉 a와 같은 일반적인 평가이후의 沈默은 비선호부의 특성을 지닌 것으로 해석되어 'It is not dreary'라는 비동의를 의미로 풀이가 된다. 그런데 b같은 자기비하의 경우는 그 예상이 a와는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져 동의를 의미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선행말차례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III章에서 보았듯 비선호부의 중요한 특성인데, b의 자기비하식 평가 連續體에서는 대화의 예상이 반대로 이루어져 비동의를 선호부로, 동의를 비선호부로 그 非等價(nonequivalency)의 級이 각각 부여된다는 것이다.

후속부에 대한 예상이 반대로 일어나는 또 다른 종류의 評價는 自畫自讚(self-praise)의 경우로 여기에서도 交叉削減原則이 적용되며, 그 결과 찬사에 대한 동의의 선호성과 '자화자찬 회피원칙'이 상호 갈등을 惹起시킨다. 이러한 갈등에 대해서 Pomerantz(1978:98--103)는 '평가절하식 동의'(down-graded agreement)와 '指示對象의 轉移'(referent shift), 그리고 '전면 비동의'(plain disagreement)같은 세가지 유형의 解決策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첫번째와 두번째 해결 유형만을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21) a. A:You did a great job cleaning up the house.

B:Well I guess you haven't seen the kid's room.

b. A:You're a good rower. Honey

B:These are easy to row. Very light.

찬사조의 평가에 대한 비동의를 그 찬사에 대한 직접적이고 대조되는 정반대의 주장이 아니라, a의 경우처럼 오히려 緩和(qualification)나 縮小(diminution)의 형식으로 그 찬사를 평가절하시키는 동의를 통해 주로 이루어지며, 통상 yet, but, well, though 등과 같은 비동의 標識語와 共起하는 경우가 많다. 즉 a에서 아내는 남편의 'good job'이라는 '호의로운 찬사'가 '아이들의 방'과 관련해





체는 그것이 무엇인가 호출에 대한 理由 등을 예상케하는 前兆라는 점에서 인접작과 相異하며 그 결과 이러한 연속체는 最小한 세개의 말차례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sup>20)</sup> 이러한 사실은 (22)의 대화실례에서 보듯 호출에 대한 응답으로 ‘what?’ ‘yeah?’ 등과 같은 의문형을 흔히 사용함으로써 ‘호출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데서 잘 立證된다 하겠다. 하지만 강의실의 출석호명이나 전화부의 도입부에서 보듯 인접작의 성격에 따른 ‘S-A’연속체가 항상 발생하고, 日常對話에서도 인접작 ‘S-A’와 ‘O-A’ 연속체로 된 ‘A: 철수야((호출))-B: 응((응답))-A: 나하고 공놀이 하자((제의(offer)))-B: 좋아((수락))’의 대화事例가 충분히 발생가능하다. 따라서 (22, b)에 대한 Levinson의 주장은 再考되어 ‘S-A’의 연속체를 인접작으로 認定할 수 있는 분석이 加해져야 한다. 즉 b의 경우 T<sub>2</sub> ‘what?’은 인접작 ‘S-A’의 選好後續部이자 동시에 호출에 대한 이유를 묻고 있는 인접작 ‘Q-A’의 先行부가 됨으로써 대화 b는 두개의 인접작으로 구성되는 세개의 말차례 구조로 분석이 가능하며, 동시에 **선행부** - **후속부+선행부** - **후속부**의 構造로 각기 다른 참여자에 의해 發話됨으로 이들을 典型的인 인접작 ‘S-A’와 ‘Q-A’의 變異形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이러한 분석은 하나의 간단한 발화(말차례)가 동시에 여러가지 機能을 행할 수 있음을 例證하는 격이 되는데, 실제 T<sub>2</sub>의 ‘what?’은 ‘Yes dear(답), What are you calling for?(질문)’의 요소로 분석이 가능한 것이다.

(23) A refers to a newspaper salesboy in this dialogue.

T<sub>1</sub> A: 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대구지방지)구독 좀 해 보시죠((APPEAL))

T<sub>2</sub> B: 어, 대구에 사는 이 친구들께 부탁해 보지((PROCESSING PASS))

T<sub>3</sub> A: 그럼 이곳에 사시는 분 중 누가 구독 좀 해 주시죠((RE-DIRECTIVE APPEAL))

T<sub>4</sub> C: D야, 자네 생각은?((CONFERENCE PASS))

T<sub>5</sub> D: 나? 그럼, 내가 한번 받아 볼까?((ACCEPTANCE))

T<sub>6</sub> A: 감사합니다. 아저씨((ACKNOWLEDGMENT))

대화 (23)은 신문배달 소년이 購讀을 呼訴하고 있는 연속체로서 여러 명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Jefferson and Schenkein(1978)에 의하면 이러한 호소연속체는 비록 그 規模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基本構造가 갖고 있는 원래의 요소들과 그 順序 및 始發者(initiator)의 根幹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떤 화자가 호소에 해당하는 발화를 할 때에는 호소의 발생에 投射되는(project) ‘호소(A)-수락(A)/거절(R)-謝意(A)’의 연속체를 생각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을 基本連續體(unexpanded appeal sequence=UAS)로 하여 그 變異形으로 실제 대화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擴大連續體(expanded appeal sequence=EAS)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sup>21)</sup>, 우선 이를 잠시 보자.

20) Levinson(1983:310)

“Summons-Answer sequences are actually elements of (minimally) three-turn sequences.

21) Jefferson and Schenkein(1978: 155-172)은 UAS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다수의 EAS를 제시하고 있는데, 筆者는 이러한 EAS를 모두 UAS의 變異形으로 간주하고자 하는 바, 이는 기본 연속체 UAS의 骨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4) a. UAS(기본호소연속체)

(I) A:Appeal

(II) B:Acceptance/Rejection

(III) A:Acknowledgment

b. EAS(확대호소연속체)

(I) A:Appeal

B:Processing pass

(I-r) A:Re-directed Appeal

C:Conference Pass

(II) D:Acceptance/Rejection

(III) A:Acknowledgment

연속체 b는 기본연속체 a를 확대한 것으로서, 대화 (23)의 구조를 요약하고 있다. 이 대화에서 B는 A의 구독호소에 수락/거절로 답을 해야 하는데, 타지역 출신임을 제시하면서 그 호소에 대한 응답을 우회, 거절해 버린다. 이에 대한 A의 再呼訴에 C는 D의 意思를 물으면서 말차례를 넘기고, 그다음 D의 수락과 연이어 始發者인 A의 감사가 뒤따른다. 그들은 대화상에서 適切한 次後行爲를 회피하는 한가지 방편으로 '進展'(passing)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23)의 T<sub>2</sub>처럼 적당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적절한 차후행위를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발화를 '過程 進展部'(processing pass=PP), T<sub>4</sub>처럼 적절한 차후행위를 타인과의 협의로 留保시키는 발화를 '協議進展部'(conference pass=CP)로 칭하고 있다. 결국 진전부들은 연속체의 질<sup>19</sup> 있는 확대를 도모하면서, (II)수락/거절의 길로 나가도록 指向되어지며, 그 성격상 다음 화자에게도 代案(option)의 여지를 항상 남겨주어 연속체확대소(sequence expander)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sup>22)</sup>. 그런데 UAS와 그 확대변이형 EAS를 연구함에 있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말차례 I-II(호소-수락/거절)와 II-III(수락/거절-사의)의 관계에 존재하는 성격의 糾明이다. Jefferson and Schenkein은 II-III의 관계를 連續雙(consecutive pairs)으로 命名하면서 인접쌍과의 성격차이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인접쌍의 경우는 선행부의 발생이 그 후속부의 발생을 誘發시켜, 그 결과 후속부가 발생하거나 혹은 省略 내지 留保됨으로 인해 유평화되어 지는데 반해서, 연속쌍의 경우는 이것들이 짝을 이루는 부분들이 아니고 연속체의 부분들인 것이며, 그결과 이의 전반부 발생은 그 쌍이 내포되어 있는 연속체에 의해 야기된다.'<sup>23)</sup>

그들은 또한 이 연속쌍은 전반부의 발생이 후속부의 연이은 발생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I-II'의 관계에 대한 言及은 全無하다. 그러나 필자는 이의 관계를 呼訴의 擴大連續體에 內包되어 있는 인접쌍의 變異形으로 看做하는 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들 짝 'I-II'(호소-수락/거절)는 (23), (24)에서 보듯이 서로 인접해 있으며 상호 相異한 화자에 의해서 발화되고 있고, 또한 그 순서가 있어 선행부 다음에 반드시 후속부가 뒤따르며, 동시에 차기화자와 그 화

22) 進展(passing)에 의해 비록 확대되었어도 원래의 구성요소와 그 순서 즉 (I)-(II)-(III)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만약 (24, b)에 과정진전부를 한번 더 加하면, 또 다른 호소 연결체의 變異形 'A-B-A-C-A-D-E-A-'가 可能하며 이 경우 B와 C는 PP이고, D는 CP가 된다.

23) Jefferson and Schenkein(1978:172)

"In an adjacency pair, the occurrence of the 'first pair-part' occasions the occurrence of the second, such that the second occurs or it is noticeably absent. The 'consecutive pairs' referred to here are not pair parts but sequence parts, such that the occurrence of the 'first' has itself been occasioned by the large sequence in which the 'pair' is structurally embedded."

자의 행위를 선정함으로써 말교대하기체계를 움직이는 강력한 상처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들 사이에는 挿入連續體와 유사한 성격의 進展部들(passes)이 출현하여 이들 짝을 확대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성격은 II—III같은 연속쌍의 경우, II가 III을 너무나 강력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말차레가 介在하기 어렵다는 性格對照에서 여실히 증명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분석은 대화(22)와 더불어 특수한 구조 속에 內包되어 있는 인접 짝 變異形의 또다른 樣相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은 인접 짝의 경우 그 실행부와 후속부사이에 대화의 一貫性을 이어가는 삽입연속체나 進展部 등의 말차레가 내포되어질 수 있으나, 연속쌍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 事實이다.

한편 A. Ferrara는 일반 대화에 존재하는 말차레의 기본유형을 9개 제시하고 있다<sup>24)</sup>. 그는 모든 종류의 대화 활동時 位置上에 아무런 제약없이 발생할 수 있는 말차레 유형을 두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掃路部(channel-clearing sequence)와 應急部(emergency sequence)가 그것이다. 선자는 對話經路의 악조건에 의해서 야기된 순간적이며 비의도적인 對話挫折을 복구하려는 화자의 의도를 함축하고 있으며, 'I beg your pardon?' 'Please say it again' 'Speak louder, I can't hear you' 등이 그 실례들이라 하겠다. 후자는 화자의 主要目的이 위험하거나 불쾌한 상황에 대해서 청자에게 警告하거나 혹은 그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청자로부터 어떤 것을 行하도록 하는 모든 發話를 포함하는데 이에 'Watch out, a car is coming!', 'Look, the train is moving. There, on track 4', 'It will be raining in five minutes, we'd better hurry up' 등이 그 예라 하겠다. 이러한 응급부는 다른 참가자의 말까지도 干涉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그 화자로 하여금 어떤 의무조항이나 關係性 및 位置 등의 요구조건 등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그 결과 이러한 말차레의 出現 등으로 또 다른 구조를 지닌 인접 짝 變異形을 예상할 수 있겠다.

다음은 IV章에서 문제로 제기된 인접 짝 'Q—A'의 후속부에 대한 選好組織을 보자. 선호/비선호부의 區別을 위한 기준은 前考한 바 있는 비선호부의 구조적 특성과 Levinson이 밝히고 있는 '豫想된 應答'(expected a.) / '豫想外的 應答이나 無應答'(unexpected a. or non-answer)이 될 수 밖에 없다. 여기서 'expected/unexpected'라는 개념은 발화순간에 화자가 심리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그런 응답의 개념이 아니라, 질문 Q의 구조상 豫見되는 '無標化' / '有標化'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 경우 유희화는 비선호부의 여러 特性을 갖게 된다. 편의상 대화(7) 과 (8) 을 다시 引用해 보자.

(25) A : What does John do for a living?

B:a. Oh this and that

24) A. Ferrara(1980 : 332-336) 참고삼아 이들 9개의 유형을 순서대로 옮긴다.

여기서 sequence의 개념은 여러 話行(speech act)들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말차레(turn)의 개념을 뜻한다.

- i) initial greeting sequence
- ii) Howareyou s.
- iii) non-topical s.
- iv) topical s.
- v) encounter---evaluative s.
- vi) arrangement s.
- vii) closing greeting s.
- viii) channel--clearing s.
- ix) emergency s.

- b. He doesn't
- c. I've no idea
- d. What's that got to do with it
- e. Better ask Mary
- f. ((SILENCE))

(26) A: Is John there?

B: You can reach him at extension thirty-four sixty-two

인접작 'Q-A'의 실례 (25), (26)에서 어느 응답이 선호부에 속하고 비선호부에 속하는가를 결정하는 일은 간단치가 않다. 여기서 잠시 의문문에 대한 生成意味論의 입장을 援用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변형문법에서 의문문 촉발형태소 Q는 그 意味表示로서 흔히 'I request you to tell me'와 같은 上位文을 설정하게 한다. 그 결과 (25)와 (26)의 실문은 각각 'I request you to tell me what John……'과 'I request you to tell me whether John……'의 要請(request)의 의미로 풀이되고, 따라서 이 'Q-A'는 곧 인접작 '요구(청)—수락/거절'의 形態로 대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根據로 해서 (13)~(17), (25)~(26)을 나름대로 分析해 보면 YNQ와 WHQ에 따른 直接應答(direct a.)과 동시에 Katz가 주장한 '가능한 응답'에 속하는 응답류는 모두 無標化한 것으로 選好部로 분류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情報에 대한 요구, 행위에 대한 要求, 약속에 대한 요구 등의 選好部는 요구받은 정보나 행위 및 약속을 제시하거나 행하는 것 등이 되듯이, 質問에 대한 선호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도록 요구하는 화자의 要請을 수락하여 그에 대한 직접적인(direct) 응답을 제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서 間接應答(indirect a.)의 경우는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데, 우선 질문의 타당성을 반박하면서 질문 자체를 회피하거나 그 전제를 거부하는 등의 拋棄型應答이나, 답변에 대한 無知와 거절, 그리고 새삼자에게 전가하는 解說型應答 등은 沈默(silence)과 함께 非選好部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으며, (25)의 경우도 바로 여기에 속한다고 하겠다. 그러한 한편 요구받은 정보 외의 정보를 주면서 含蓄에 의해 Q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補充型應答은 選好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분석은 '話·聽者는 協助的이다'는 Grice의 協助原則에 의거 답변 속의 함축을 통해 선행질문에 대한 직접응답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더 追加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6)의 경우 그 답변은 직접응답인 'No, he isn't here'를 함축 내지는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 VI. 結 論

일반적으로 對話分析은 一貫性있는 談話의 생성을 위한 規則을 발견하고, 그러한 규칙에 의해 생성되는 對話構造 및 諸般連續體의 규명·기술을 그 目的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대화구조에는 화자의 交代를 組織化하고 한 번에 한 사람이 이야기 할 것을 주로 意圖하는 말교대하기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이러한 基本體系를 作動시켜 대화의 進行을 촉진시키는 가장 훌륭한 체계, 즉 '인접작'이란 연속체가 또한 包含된다. 本考에서는 이러한 인접작에 관한 研究를 그 特性과 機能, 選好組織의 구조적 특성 및 그 體系化 可能性 유무 위주로 분석하였으며, 동시에 그러한 분석에서 派生되는 문제점과 해결책 등을 一瞥하였는 바, 그 중요 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접작의 先行部와 後續部 사이에는 挿入연속체나 과정/협의 '進展部(pass)' 등이 內包(embedding)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대화의 規模가 확대되어 질 수 있고, 이 경우 그 내용의 일관성을 상실하게 되면, 話題不良에 따른 대화의 病理現象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隣接해 있다는 位置概念이 화자의 일관성과 연계된 適切성과 豫見性的의 개념으로 補完됨이 바람직하며, 選好組織의 특성상 선호부는 구상이 簡略하고 직접적이며, 지연없이 이따금 부분적인 중복의 형태로 구현되고, 비선호부는 구상이 복잡하고 지연되는 有標化 現象을 볼 수 있었다.

셋째, 어떤 말차례는 선행말차례에 의해 影響을 받고 후속말차례에 영향을 끼침이 일반적이거나, 역으로 그 後續部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인접작을 包含하고 있는 全體組織(overall organization)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었다.

넷째, 인접작 'Q-A'와 'A-A/D'의 分析을 통해 비록 複雜多岐한 樣相을 보이지만 그 후속부에 대한 體系化가 可能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섯째, 인접작은 통상 두개의 말차례로 구성되어 獨立的인 連續體를 구성함이 일반적이거나, 세개의 말차례로 구성되는 연속체(e.g 호출연속체나 호소연속체) 등에도 變異形으로 처리될 수 있는 인접작이 存在가능했다. 또한 對話時 그 위치에 拘礙받지 않고 출현가능한 掃路部와 應急部 등의 존재로 인접작의 또 다른 變異形을 예견할 수 있었다.

끝으로 (15. c)와 (25. a)의 응답경우, 이를 '應答에 대한 화자의 態度'로 간주하여 모두 비선호부에 귀속시키고, 또한 Pomerantz(1978: 94-98)가 제시하고 있는 先行讚辭에 대한 평가절하식 동의(scaled-down agreement) 등을 모두 選好部로 評價하는 것 등은 異論의 素地가 많아 中立後續部(?)같은 말차례도 고려됨직 하나 일반성 문제가 대두되어 검토가 容易하지 않다. 뿐만아니라 같은 選好部에 속하여도 Q에 대한 직접응답과 그러한 직접응답을 含蓄하고 있는 補充型應答의 경우는 그 選好度(preferentiality)에 차이가 있는 듯 한데, 이들에 관한 考察은 추후의 研究課題로 돌린다.

## 參 考 文 獻

- Atkinson, J. M. & P. Drew. *Order in Court*. London:Macmillan, 1979.
- Bax, M. "Rules for Ritual Challenges:A Speech Convention Among Medieval Knights", *Journal of Pragmatics* 5. 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1981,423-444.
- Coulthard, M. *An Introduction to Discourse Analysis*. Longman Group Limited, 1977.
- Drew, P. "The Organisation and Management of Corrections in 'Instructional' Talk:a Response to Wells and Montgomery." P. French & M. MacLure, eds. *Adult-Child Conversation:Studies in Structure and Process*. London:Croom Helm, 1981, 244-67.
- Ferrara, A. "Appropriateness Conditions for Entire Sequences of Speech Acts", *Journal of Pragmatics* 4. 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1980, 321-340.
- Grice, H. P. "Logic and Conversation", Peter Cole & J. L.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3:Speech Acts*. New York:Academic Press, 1975, 41-59.
- Halliday, M. A. K. & R. Hasan. *Cohesion in English*. Longman Group Limited, 1976.
- Katz, J. J. *Semantic Theory*. Harper & Row, Publishers, 1972.
- Levinson, S. C. *Pragma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 Pomerantz, A. *Second Assessment:A Study of Some Features of Agreements/Disagreements*.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1975.

- \_\_\_\_\_. "Compliment Responses: Notes of the Co-Operation of Multiple Constraints", Schenkein, J. eds. *Studies in the Organization of Conversational Interaction*. Academic Press, 1978, 79—112.
- Sacks, H. "On the Analyzability of Stories by Children", Gumperz and Hymes, eds. *Directions in Sociolinguistic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72, 325—345.
- Schegloff, E. A. "Sequencing in Conversational Openings", Gumperz and Hymes, eds. *Directions in Sociolinguistic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72, 346—380.
- Schegloff, E. A. & H. Sacks. "Opening up Closing", *Semiotica* 4. 1973, 295—296.
- Sinclair, J. M. & R. M. Coulthard. *Towards an Analysis of Discourse: the English Used by Teachers and Pupil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5.
- 具滋銀, "發話文의 諸意味樣相과 話用的 解釋", 言語研究 第3輯, 大邱言語學會, 1983, 13—25.
- 金宗澤, 國語話用論, 螢雪出版社, 1984.